



초기 청소년의 위기에측모형 개발

박 영 숙¹⁾

서 론

십대는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중대한 취약 시기라 할 수 있으며(Elkind, 1998),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입시와 취업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인생에 대한 자주적인 의사결정,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방식, 건강한 생활양식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이어서(Yoo, 1997) 더욱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한다. 초기 청소년은 상급학교 입학, 사춘기, 역할 전환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학교와 장래 영역에서 후기 청소년보다 스트레스가 높다(Seiffge-Krenke, 1995). 일단 심각한 문제 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다시 긍정적인 발달 과정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국가나 지역사회,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측면의 연구나 서비스들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학교에서의 위기중재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인식되어 더욱 확대 실시되고 있다(Adelman & Taylor, 2000; Eaves, 2001; 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그러나 국내의 경우 체계적인 위기 예방 및 관리가 부적절한 실정이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 대처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전반적인 실무를 안내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이론을 토대로 할 때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위기이론들은 예방적 차원의 유용성에 비해 실무검증 및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틀로는 한계가 있으며, 질병 중심적 경향이 크므로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는 전인간호 모형이 요구된다(Narayan & Joslin, 1980). 또한 위기 관련 변수와 특성들은 위기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혼돈을 초래할 정도로 산발적이고 모호한 경향이 많다(Darbonne, 1968; Narayan & Joslin, 1980). 가장 많이 인용되고 적용되어 온 Aguilera 모형(1994)도 주로 개별적이고 탐색적인 접근 경향을 띄고 있으며 실무이론 보다는 패러다임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실무의 이론적 기틀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Parad(1965)가 실무자나 연구자 모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반적인 위기행동이론을 공식화할 것과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방에 기초한 중재모델들을 특정화할 것을 강조한 측면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시도된 연구로 박영숙(2002b)의 연구를 들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중증 이상의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는 초기 청소년의 위기를 설명하는 모형이며, 갑작스런 거대한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의 위기를 적절히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보다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 즉 이 모형이 위기 개념의 성장 잠재력에 보다 초점을 두어 실무에서 예방적 관점을 제공해주는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기이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재검증하거나 보다 정련화하는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여 초기 청소년

주요어 : 청소년, 위기

1) 신홍대학 간호과 조교수;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투고일: 2003년 3월 13일 심사완료일: 2003년 10월 4일

- 초기 청소년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초기 청소년의 위기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개념적 기틀

가설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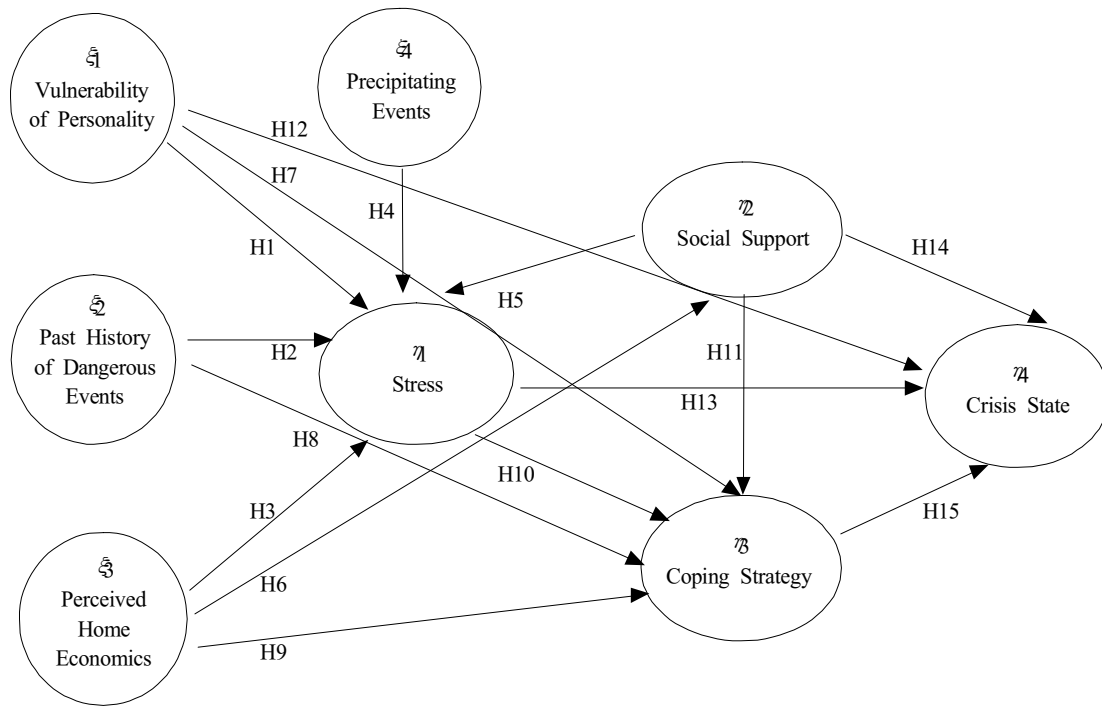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선행문헌을 토대로 예측모형을 도출하고 수집된 자료에 의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다단계 집락요출법으로 선정된 서울시내 소재 11개 중학교에서 각 학년마다 3개반의 전체 학생중에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위기 상태라 판단되는 총 4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연구대상은 위기 행동이 중등도 이상(위기행동 점수 9점 이상)이고 위기의식이 있으며 지속기간이 1주에서 8주 이하이며 촉발사건을 밝힌 대상자이었다.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필요성, 내용, 방법,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2001년 11월부터





〈Figure 2〉 The hypothetical model

12월까지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보건교사나 담임교사가 연구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지침을 안내한 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도구

● 위기 상태

대상자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상태의 심각성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박영숙(2002a)의 도구를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를 기준으로 위기의식이 있고, 위기행동 점수가 중등도 이상이며, 촉발사건이 명확하고, 위기지속기간이 1주 이상 8주 이하인 대상자를 의미한다. 위기행동도구는 위기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특성에 관한 1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범위는 0점에서 33점이며 0점; 위기 없음, 1-8점; 경증위기(mild crisis), 9점-16점; 중등도 위기(moderate crisis), 17-24점; 심한 위기(extensive crisis), 25-33점; 극심한 위기(severe crisis)를 나타낸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2이었다. 또한 위기의식은 자신이 위기상태에 있음을 지각하는 것과 관련된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 3점까지이며 1점 이상이 위기상태를 나타낸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8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62이었다.

● 성격의 취약성

위기발생에 취약한 성격으로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이며 9

문항으로 구성된 박영숙(2002b)의 위기취약성격 도구와 2점 척도이며 12문항으로 구성된 Eysenk 성격특성 체크리스트(Lee & Lee, 1981)로 측정한 점수이다. 두 도구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발생에 대한 취약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위기취약성격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 .7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Eysenk 성격특성 체크리스트의 Cronbach's α .57이었다.

● 위험사건 과거력

위험사건의 이전 경험 정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박영숙(2002b)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이 도구는 12문항의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77이었다.

● 스트레스

자신의 자원들을 초과하거나 개인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개인의 환경과의 독특한 상호작용으로 (Lazarus & Folkman, 1991) 본 연구에서는 박영숙(2002b)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이 도구는 10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영숙(2002b)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6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0이었다.

● 촉발 사건

위험한 사건을 더이상 견디지 못해 결과적으로 위기를 초래한 마지막 사건이나 상황을 말하며(Sifneos, 1960), 본 연구에서는 박영숙(2002b)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이 도구는 촉발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개방형 질문과 촉발사건의 강도에 관한 2문항의 2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촉발사건의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영숙(2002b)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5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57이었다.

● 사회적 지지

필요시 도움이나 감정적 동조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며(Sarason, Levine, Basham & Sarason, 1983),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또래로부터의 다양한 지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박영숙(2002b)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이 도구는 16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영숙(2002b)의 연구에서 부모 지지의 Cronbach's α .92, 또래 지지의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부모 지지의 Cronbach's α .91이었고 또래 지지의 Cronbach's α .88이었다.

● 대처 방식

대처란 스트레스를 다루어 가는 노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박영숙(2002b)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이 도구는 문제중심 대처 5문항, 소망적 사고 대처 4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한 대처 방식의 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영숙(2002b)의 연구에서 문제중심 대처의 Cronbach's α .69, 소망적 사고 대처의 Cronbach's α .58이었고 본 연구에서 문제중심 대처의 Cronbach's α .65이었고 소망적 사고 대처의 Cronbach's α .63이었다.

자료분석 방법

대상자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와 가설 검증은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4.7세였고, 여학생이 58.1%로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1학년이 34.4%로 가장 많았으나 학년별 분포는 비슷하였다. 가정경제는 좋다고 지각하는 학생이 62.9%

로 가장 많았으며 나쁘거나 아주 나쁘다고 응답한 학생은 29.4%이었다. 또한 자신의 성적에 대해 나쁘게 인식하는 대상자는 51.8%로 가장 많았고 아주 나쁘게 인식하는 대상자는 10.1%로 총 61.9%가 자신의 성적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의 정규성 검증

다변량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정규분포의 가정이 기각되어($\chi^2=1126.7$, $p<.001$),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정규분포를 벗어난 수량변수들의 상관/공분산 계산에 권장되는 가중최소제곱법(Weighted Least Square)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3).

● 스트레스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성격의 취약성은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gamma=1.81$, $T=4.66$)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 위험사건 과거력은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gamma=0.29$, $T=2.67$)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3. 지각된 가정경제는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gamma=-0.08$, $T=-1.97$)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4. 지각된 촉발사건의 강도는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gamma=0.04$, $T=0.61$)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5.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효율성은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beta=-0.24$, $T=-3.03$)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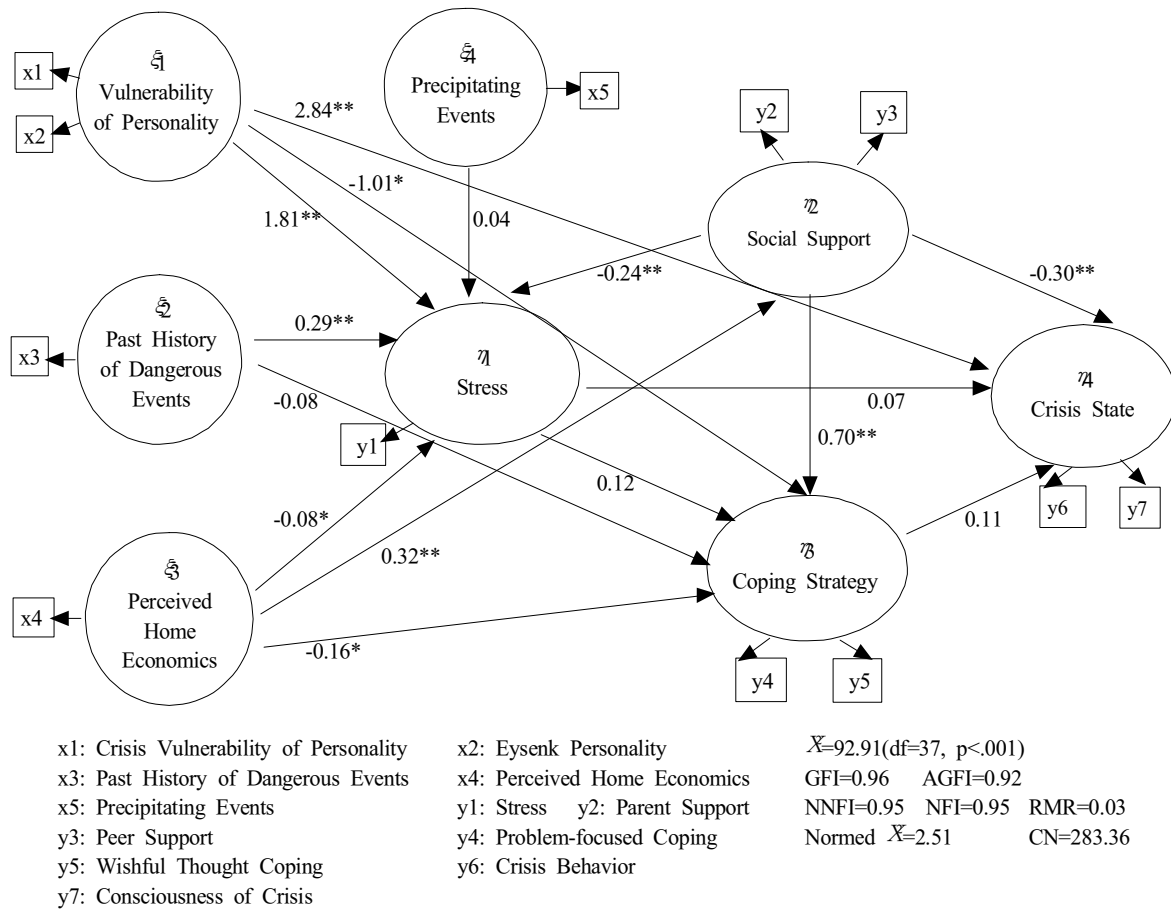
● 사회적 지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6. 지각된 가정경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gamma=0.32$, $T=5.85$)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 대처 방식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성격의 취약성은 지각된 대처 방식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gamma=-1.01$, $T=-1.96$)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8. 위험사건 과거력은 지각된 대처 방식의 효율성에 영



* p<.05, ** p<.01

〈Figure 3〉 Path coefficients of the hypothetical model

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beta=-0.08$, $T=-0.66$)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9. 지각된 가정경제는 지각된 대처 방식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beta=-0.16$, $T=2.55$)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0.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는 지각된 대처 방식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beta=0.12$, $T=1.04$)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11.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효율성은 지각된 대처 방식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beta=0.70$, $T=4.23$)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 위기 상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2. 성격의 취약성은 위기 상태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beta=2.84$, $T=5.87$)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3.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는 위기 상태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beta=0.07$, $T=0.74$)가 유의

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14.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효율성은 위기 상태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beta=-0.30$, $T=-2.67$)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5. 지각된 대처 방식의 효율성은 위기 상태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접효과($\beta=0.11$, $T=1.31$)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적 모형의 수정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와 간명도를 높이기 위해 고정지수가 적고 모형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로를 제거하였다. 위험사건 과거력에서 대처 방식으로 가는 경로는 고정지수가 적고 선행 연구에서 그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제거하였고 오히려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사건 과거력에서 사회적 지지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였다. 한편 촉발사건에서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스트레스에서 위기상태로 가는 경로의

고정지수도 작았으나 이는 위기 관련 문헌에서 그 중요성이 많이 보고되었고 핵심적인 요인중 하나로 판단되어 삭제하지 않았으며, 촉발사건이 강력한 경우 그 사건의 거대함 때문에 위기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문헌들에 근거하여 촉발사건에서 위기상태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였다. 지각된 가정경제는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물질적 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더 높게 나타나 간접적인 영향이 모형에 부여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지각된 가정경제에서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였다.

수정모형의 부합도

● 수정모형의 부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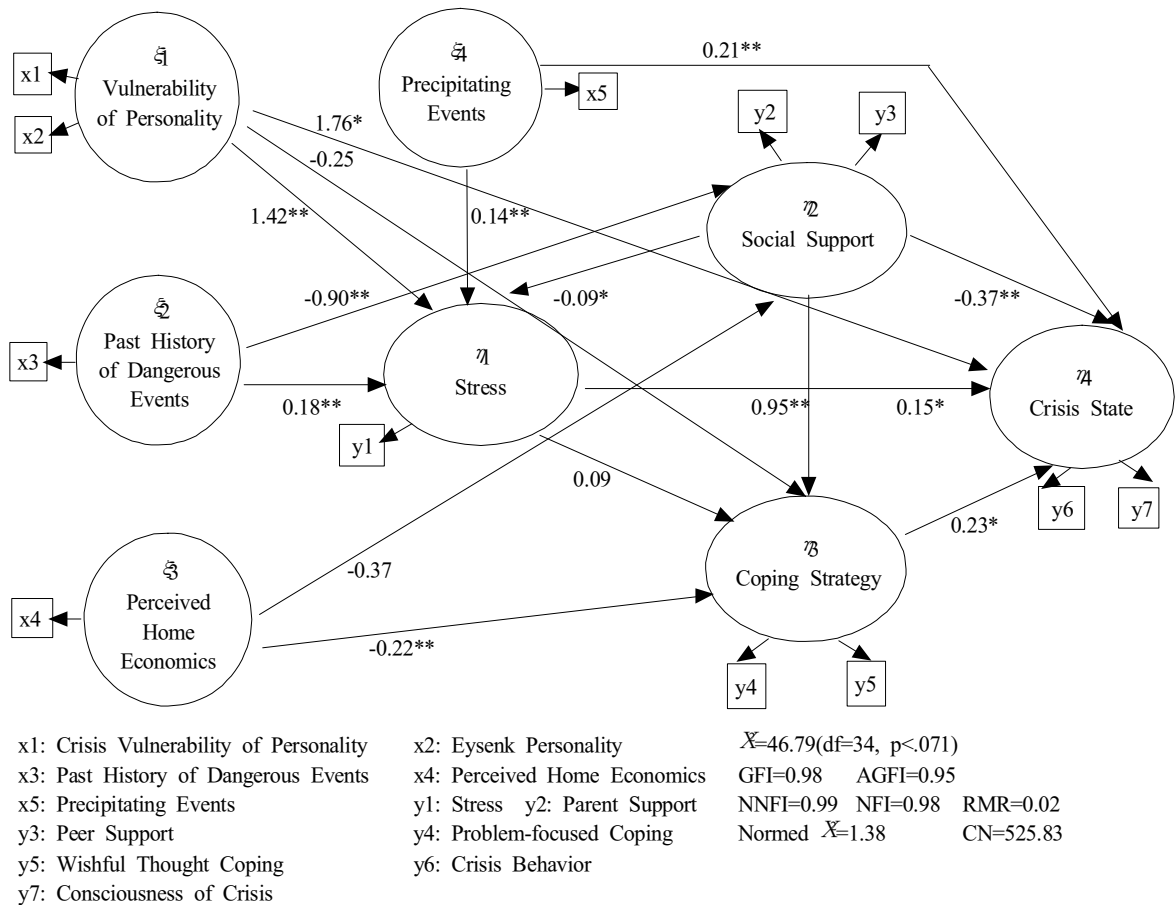
모형의 부합도와 간명도를 나타내는 각각의 지수 모두에서 수정모형이 카이제곱치($\chi^2=46.79$, 자유도=34, $p<0.71$), 기초부합지수(0.98), 수정부합지수(0.95), 비표준부합지수(0.99), 표준부합지수(0.98), 원소평균자승잔차(0.02), 표준카이자승값(1.38),

임계 N(525.83)이 가설모형 보다 향상되어 수정모형이 실제 자료를 보다 잘 설명해주는 간명도가 높은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Figure 3, Figure 4).

2) 수정모형의 특징수 추정치 및 총효과

스트레스의 예측변수 중에서 지각된 가정경제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직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이들이 스트레스를 설명한 정도는 33%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예측변수 중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위험사건 과거력이었고 사회적 지지를 설명하는 정도는 15%이었다. 대처 방식은 예측변수 중 지각된 가정경제와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고 위험사건 과거력은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이들이 대처 방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61%이었다. 위기 상태는 모든 예측변수들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위기 상태를 65% 설명하였다(Table 1).

논 의



* $p<0.05$, ** $p<0.01$

〈Figure 4〉 Path coefficients of the modified model

〈Table 1〉 Effects of endogenous variables for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 Indicator	Direct Effect(T)	Indirect Effect(T)	Total Effect(T)	SMC
Stress				0.33
Vulnerability of Personality	1.42(5.33)**	--	1.42(5.33)**	
Past History of Dangerous Events	0.18(5.27)**	--	0.26(5.51)**	
Perceived Home Economics	--	0.03(1.15)	0.03(1.15)	
Precipitating Events	0.14(2.91)**	--	0.14(2.91)**	
Social Support	-0.09(-2.00)*	--	-0.09(-2.00)*	
Social Support				0.15
Perceived Home Economics	-0.37(-1.41)	--	-0.37(-1.41)	
Past History of Dangerous Events	-0.90(-2.87)**	--	-0.90(-2.87)**	
Coping Strategy				0.61
Vulnerability of Personality	-0.25(-0.49)	0.13(0.76)	-0.12(-0.26)	
Past History of Dangerous Events	--	-0.83(-2.44)*	-0.83(-2.44)*	
Perceived Home Economics	-0.22(-3.57)**	-0.34(-1.34)	-0.57(-2.09)*	
Stress	0.09(0.79)	--	0.09(0.79)	
Social Support	0.95(5.05)**	-0.01(-0.63)	0.94(5.13)**	
Crisis State				0.65
Vulnerability of Personality	1.76(5.34)**	0.18(1.17)	1.94(7.12)**	
Precipitating Events	0.21(3.74)**	0.02(1.90)	0.23(4.11)**	
Stress	0.15(2.13)*	0.02(0.72)	0.17(2.78)**	
Social Support	-0.37(-3.61)**	0.20(2.03)*	-0.17(-3.19)**	
Coping Strategy	0.23(2.46)*	--	0.23(2.46)**	

* p<.05 (|T| > 1.96) ** p<.01 (|T| > 2.58)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otal Effect=Direct Effect + Indirect Effect + ㄱ제 3효과)

본 연구는 선행 위기이론들이 다양하게 제시하는 요인들을 통합함으로써 모형의 간명도를 향상시키고, 성격의 취약성, 지각된 가정경제, 위험사건 과거력과 같은 개인의 독특한 특성에 관한 새로운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위기 발생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위험사건, 개인 취약성, 스트레스,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위기 반응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예측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절한 중재가 제공 되도록 해야 한다는 Schulberg와 Sheldon(1968)의 주장을 보다 발전시킨 것이다. 본 연구의 수정모형은 박영숙(2002)의 위기 모형이 심각한 위기 상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이들을 포함한 보다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기 상태에 대한 설명력이 31%인 것에 비해 65%로 크게 향상되어 위기 발생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 높은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모형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의 기본적인 가정은 같으면서도 위기취약성격의 측정변수의 수를 강화하고 가설경로를 보강하여 재검증함으로써 박영숙(2002b)의 모형($\chi^2=47.06(df=28, p<0.05)$, GFI(0.96), AGFI(0.92), NNFI(0.95), NFI(0.94), RMR(0.04), Normed $\chi^2(1.68)$, Critical N(234.88)에 비해 간명도와 부합도 지수가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여 위기 이론의 정련화에 일보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사건을 경험하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큰 재난이나 대 변동 같은 거대한 사건을 경험하는 대상자에 관한 문헌들(Callahan, 1998; Roberts, 1998)에도 잘 부합하고 있어 실제 초기 청소년 관련 실무에서 공식화된 위기이론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한 위기간호모형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모형을 중심으로 위기의 주요 구성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성격의 취약성 요인은 위기 상태와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양적 영향을 미쳐 성격의 취약성이 높을수록 위기 상태와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대처 방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외향성, 신경성, 정신증상을 비롯한 성격특성이 스트레스 정도와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 Kardum과 Hudek-knezevic(1996)의 연구와 유사하나 대처 유형이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 측면과는 다른 결과이다.

촉발사건 요인은 스트레스와 위기 상태에 직접적인 양적 영향을 주어 촉발사건의 강도가 클수록 스트레스와 위기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촉발 사건이 위기가 되기 전에 개인에게 스트레스 사건으로 지각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제시한 바 있는 Parad(1966)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수정모형은 박영숙(2002b)의 모형과는 달리 촉발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대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촉발사건이 강력한 경우에는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나

취약한 상태가 필요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사건의 거대함 때문에 위기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한 Callahan(1998)과 사건의 예기치 못한 특성이 위기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 Roberts(1998)의 주장에도 잘 부합된다.

위험사건 과거력 요인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직접적인 부적 영향과 스트레스에 유의한 직접적인 양적 영향을 주어 위험사건 과거력이 많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효율성이 낮았으며 스트레스는 높았다. 이는 위험사건의 객관적인 심각성이나 경험 빈도가 크면 클수록 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위기 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한 Schulberg와 Sheldon(1968)의 주장과 같으며 이러한 위험사건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지각된 가정경제는 대처 방식에는 유의한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주는 반면 사회적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청소년들은 지각된 가정경제가 낮을수록 자신의 대처 방식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된 효율성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상태가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Kloop(1995)와는 다른 결과로 가정경제가 지각된 사회적지지 보다는 초기 청소년의 주관적인 지각된 대처방식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위기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는 위기 상태에 유의한 직접적인 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처 방식에는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스트레스가 위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선행위험요인이나 핵심요인이라고 한 연구들(Aguilera, 1994; 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과 청소년들이 주로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를 검증한 Seiffge-Krenke(1995)와도 같은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 요인은 대처방식에 유의한 직접적인 양적 영향을, 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쳐 사회적 지지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대처방식의 효율성도 높았고 스트레스는 덜 심각하였다. 위기 상태에는 유의한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위기의 심각성이 적었다. 즉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대처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위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초기 청소년의 위기 상태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 중요성을 명백하게 나타내 준다. 이는 위기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간접적인 영향을 주장한 연구(Printz, Shermis & Webb, 1999)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장하는 연구(DuBois, Felner, Sherman & Bull, 1994)의 견해를 모두 지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대체로 부모보다 또래로부터의 지지를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긍정적인 방식으

로 자신의 가정과 애착되어 있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구하게 되므로 가족은 청소년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Herbert, 1998). 또한 가족과 친구 뿐만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체계도 주요 요인으로서 학교의 담임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위기를 예방적 차원에서 도와주고 관리할 수 있는 제일선의 책임자들이며(Kline, Schonfeld & Lichtenstein, 1995), 특히 학교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대처 방식 요인은 위기 상태에 유의한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취한 대처 방식으로부터 실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위기 상태가 심각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제 위기 상태에 있는 초기 청소년에게 자신이 실제 수행한 대처방식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위기상태가 심각할수록 자신의 대처 방식의 효과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가 긍정적이게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인 문제해결적 측면에서의 평가보다는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 있는 초기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과도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처 자원이 위기를 결정하게 되며(Roberts, 1998), 청소년 문제를 파괴적인 특성이나 위기의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대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Gibson-Cline, Dikaoui, Haritos-Fatouras, Shafir & Ondis, 1996)는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자신의 평소 대처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대처노력이 부적응적이거나 부적절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는(Kim & Oh, 1998; Callahan, 1998) 주장들과는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대처 방식의 효율성과 위기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처 방식에 대한 주관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병용한 반복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위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간의 관계를 근거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위기 이론 개발에 기여하고 위기 예방 및 중재 전략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가설적 모형의 이론 변수중 외생변수는 성격의 취약성, 위험사건 과거력, 지각된 가정경제, 촉발사건이었으며 내생변수는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처 방식, 위기 상태이다. 연구대상자는 다단계집락법으로 선정된 서울시내 소재 11개 중학교에서 중등도 이상의 위기상태로 판단된 439명이었다.

가설검증 결과 총 15개의 경로 중 10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내 지지되었다.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와

간명도를 높이기 위해 고정지수가 적고 모형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로 2개를 제거하였고 기존 문헌을 토대로 경로 2개를 추가하였다. 수정모형은 카이제곱치($\chi^2=46.79$, 자유도=34, $p<0.71$), 기초부합지수(0.98), 수정부합지수(0.95), 비표준부합지수(0.99), 표준부합지수(0.98), 원소 평균자승잔차(0.02), 표준카이제곱값(1.38), 임계 N(525.83)이 보다 향상되어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의 위기상태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격의 취약성, 촉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대처 방식 요인이었고, 사회적 지지 요인은 유의한 간접효과도 있었으며, 이들 변수들이 위기 상태를 65%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위기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구성요인은 성격의 취약성, 촉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대처 방식이며, 지각된 가정경제와 위험사건 과거력은 이들과의 직접, 간접적 관계를 통해 위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를 토대로 대처 방식의 효율성과 위기와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들의 대처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병용한 반복 연구와 본 연구의 모형을 이론적 기틀로 하고 본 연구에서 위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고려한 위기 예방 및 위기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delman, H. S., & Taylor, L. (2000). Promoting mental health in schools in the midst of school reform. *J Sch Health*, 70(5), 171-178.
- Aguilera, D. C. (1994). *Crisis intervention : theory and methodology*(7th ed.). St. Louis : Mosby.
- Callahan, J. (1998). Crisis theory and crisis intervention in emergencies. In P. M. Kleespies(Ed.). *Emergencies in mental health practice*(pp. 22-40). New York : The Guilford.
- Darbonne, A. (1968). Crisis : A review of theory, practice and research. *Int J Psychiatry*, 6(5), 371-379.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 63(3), 542-557.
- DuBois, D. L., Felner, R. D., Sherman, M. D., & Bull, C. A. (1994). Socioenvironmental experience, self-esteem,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Am J Community Psychol*, 22(3), 371-397.
- Eaves, C. (2001).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risis response team in a school setting. *Int J Emerg Ment Health*, 3(1), 35-46.
- Elkind, D. (1998). *All grown up and no place to go : Teenagers in crisis*(2nd ed.). Cambridge : Perseus Books.
- Felner, R. D., Ginter, M. A., & Primavera, J. (1982).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s :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al structure. *Am J Community Psychol*, 10(3), 277-290.
- Gibson-Cline, J., Dikaoui, M., Haritos-Fatouras, M., Shafrir, B., & Ondis, G. (1996). From crisis to coping : Theories and helping practices. In J. Gibson-Cline(Ed.). *Adolescence from crisis to coping: A thirteen nation study*(pp. 3-12). Oxford : Butterworth-Heinemann.
- Herbert, M. (1998). *Clinical child psychology : Social learning, development and behaviour*(2nd ed.). Chichester : John Wiley & Sons.
- Kardum, I., & Hudek-knezevic, J.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Eysenck's personality traits, coping styles and moods. *Pers Individ Dif*, 20(3), 341-350.
- Kim, T. H. & Oh, I. S.(1998). Crisis experiences of adolescents, parents, teachers. In Youth Forum Foundation(Ed.). *System and strategy of crisis counselling and intervention for adolescent*. Materials from adolescent crisis counseling seminar(pp. 81-124, 143-214). Seoul : Youth Forum Foundation.
- Kline, M., Schonfeld, D. J., & Lichtenstein, R. (1995). Benefits and challenges of school-based crisis response teams. *J Sch Health*, 65(7), 245-249.
- Kloep, M. (1995). Concurrent and predictive correlates of girls's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under conditions of economic crisis and value changes : the case of albania. *J Adolesc*, 18(4), 445-458.
- Lazarus, R. S., & Folkman, S. (1991).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Lee, S. W., & Lee, Y. J. (1981).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ing mental health assessment tool for the nurse in the public health center. *Hum Sci*, 5(5), 15-29.
- Narayan, S. M., & Joslin, D. J. (1980). Crisis theory and intervention : A critique of the medical model and proposal of a holistic nursing model. *Adv Nurs Sci*, 2, 27-39.
- Parad, H. J. (1965). Introduction. In H. J. Parad(Ed.). *Crisis intervention : Selected readings*(pp. 1-4). New York :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 Parad, H. J. (1966). The use of time limited crisis intervention in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ming. *Soc Serv Rev*, 40(9), 275-282.
- Park, Y. S. (2002a). The development of a crisis measurement scale for early adolescent.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Park, Y. S. (2002b). A crisis model for the earl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Printz, B. L., Shermis, M. D., & Webb, P. M. (1999). Stress-buffering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 coping : A path analysis. *Adolescence*, 34(136), 715-34.
- Roberts, A. R. (1998). Epidemiology and definitions of acute

- crisis in american society. In A. R. Roberts(Ed.). *Crisis management and brief treatment : Theory, technique, and applications*(pp. 16-33). Chicago : Nelson-Hall.
-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 Pers Soc Psychol*, 44(1), 127-139.
- Schulberg, H. C., & Sheldon, A. (1968). The probability of crisis and strategie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Arch Gen Psychiat*, 18, 553-558.
- Seiffge-Krenke, I. (1995). *Stress, coping, an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Mahwah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94-129.
- Sifneos, P. E. (1960). A concept of emotional crisis. *Ment Hyg*, 44, 169-179.
- Yoo, J. S. (1997). *A diagnostic study on high school health education -Based on the PRECEDE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The Development of A Crisis Prediction Model for Early Adolescent

Park, Young-Sook¹⁾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 Heung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in a crisis state while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o suggest the crisis model for early adolescent, and to test its fitness empirically. **Method:** A hypothetical model of this study was consisted of 8 theoretical variables and 12 measurable variables with 15 constructed paths. The data from the 439 middle school students at crisis state were analyzed to test the hypothetical model by using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Result:** The final model which is modified from the hypothetical model improved to $\chi^2=46.79(df=34, p<0.71)$, GFI(0.98), AGFI(0.95), NNFI(0.99), NFI(0.98), RMR (0.02), Normed $\chi^2(1.38)$, Critical N(525.83). The crisis state was influenced directly by vulnerability of personality, precipitating events, stress,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and also indirectly by social support. Crisis state was accountable for 65% of the variance by these factors. **Conclusion:** This model can offer understanding for the comprehensive multivariate covariance relationship of the influencing factors regarding the crisis of early adolescent, and can offer a preventive perspective focused on growth potential. I propose that a repeated study of complementing coping strategy should be done and the various crisi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 Adolescent, Crisis, Coping, Stress, Social suppor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Young-Sook

Department of Nursing, Shin Heung College

#117, Howon-Dong, Uijeongbu-City, Gyeonggi-do 480-701, Korea

Tel: +82-31-870-3383 Fax: +82-31-876-7526 E-mail: yspark@mail.shc.ac.kr